

이정모의 ‘자연이 건네는 말’



차우세스쿠, 침팬지 그리고 윤 어게인

김건희가 구속되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구속된 것은 세계 최초 사례라고 한다. 내 기억에는 그렇지 않다. 1989년 12월 25일 루마니아의 니콜라에 차우세스쿠 대통령과 부인 엘레나가 반역, 부패, 학살의 혐의로 체포됐다. 군부대에서 열린 군사재판은 채 한 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사형을 선고받았고 판결 직후 부부는 총살되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절대 권력을 쥐고 있던 지도자가 군중의 야유 속에서 쓰러진 것이다. 권력의 궤도는 가파르고 하강은 순식간이었다.

이 사건은 정치사에서 충격적이다. 그러나 동물행동학의 시선으로 보면 인간 사회의 권력 교체는 동물 사회의 리더 몰락과 놀랍도록 닮아 있다. 침팬지 사회에는 분명한 서열이 있다.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수컷 ‘알파’는 단순히 힘이 세다고 얻어지는 자리가 아니다. 그는 동맹을 만들고 먹이를 나누며 싸움을 중재하고 허세를 부리며 무리를 통제한다. 하지만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힘이 약해지거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면 어제의 충성스러운 동맹이 가장 먼저 등을 돌린다. 타자니아 곰베 스트림 국립공원에서 제인 구달은 수십 년간 침팬지를 관찰하며 인간과의 유사성을 기록했다. 젊고 야심 찬 험프리와 피피 형제가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하던 알파 수컷 마이크의 권위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대놓고 공격하지 않고 회의적인 표정과 무심한 태도로 그의 권위를 조금씩 깎아먹었다. 그러다 어느 날, 형제는 무리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를 공격했고, 다른 수컷들이 가세했다. 알파는 무기력하게 쓰러졌다. 며칠 뒤 그는 조용히 무리를 떠났다.

침팬지의 알파 축출은 단순한 힘싸움이 아니라 군중 앞에서의 굴욕을 동반한다. 공개적인 공격과 추격, 굴복의 순간을 무리 전체가 목격한다. 이는 단순한 생물학적 행동이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다. “이제 새로운 리더가 무리를 이끈다”는 선언이자 경고인 셈이다. 차우세스쿠 부부 처형도 비슷한 상징성을 지닌다. 단순히 두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라면 비밀리에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재판과 총살은 공개적으로 카메라 앞에서 이뤄졌다. 이는 단순한 응징이 아니라, 루마니아 사회 전체에 “권력의 시대가 끝났다”는 신호를 보내는 의례였다. 동물 사회에서 폭군형 알파는 오래 가지 못한다. 지나친 공격성과 독점은 동맹을 약화시키고, 반대 세력을 키운다. 힘이 빠지면 보복은 즉각 찾아온다. 반면, 온건한 알파는 권력을 오래 유지한다. 먹이를 나누고 싸움을 중재하며 어린 개체를 보호하는 알파는 인기라는 사회적 자본을 얻는다. 차우세스쿠는 1965년 집권 초기에는 개방적인 이미지와 민족주의를 내세웠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폭력적이고 폐쇄적인 통치로 기울었다. 1980년대 후반 루마니아 경제는 파탄났고 비밀경찰은 국민을 억압했다. 그의 권력은 공포 위에 세워졌지만 동맹을 유지시킬 신뢰는 사라졌다. 결국 군부와 당 간부들이 등을 돌린 순간 그는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 침팬지 사회의 폭군 알파가 몰락하는 순간과 놀랍도록 닮아 있다. 흥미롭게도 권력자의 몰락은 느리게 부식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엔 순식간에 무너진다. 침팬지의 경우

몇 달 동안 은밀히 세력 교체 움직임이 있다가 하루 만에 알파가 축출된다. 인간 사회에서도 혁명이나 쿠데타는 오랜 불만과 암중 모의가 쌓이다가 하루 혹은 며칠 만에 정권이 무너진다. 이런 속도 변화는 물리학적 현상과도 비슷하다. 얼음이 녹는 과정에서 온도가 조금씩 오르다가도 어느점에 이르면 갑자기 상태가 바뀌듯, 사회적 긴장도 임계점을 넘으면 급변한다. 정치는 동물 사회든 임계점의 순간은 돌이킬 수 없다. 우리는 인간 사회를 문명이라고 부르지만 권력의 작동 원리는 여전히 진화의 그림자를 짚게 드리운다. 정치적 동맹, 배신, 공개적 굴욕 그리고 빠른 몰락은 정글에서도, 궁정에서도 같은 리듬으로 반복된다. 차우세스쿠의 몰락과 곰베 침팬지의 알파 축출이 닮은 이유는 우리가 공통의 조상을 가진 영장류라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이 유사성을 직시하는 건 불편한 일이다. 그러나 그 속에는 교훈이 있다. 동물 사회에서만 인간 사회에서든 권력은 혼자 유지되지 않는다. 그것은 관계, 신뢰, 그리고 협력 위에 세워진다. 폭군은 결국 동맹을 잃고 고립 속에 무너진다. 차우세스쿠 부부가 총구 앞에서 맞은 최후 그리고 정글 속 알파의 쓸쓸한 퇴장은 간결했다. 그리고 그 집단은 새출발했다. 그런데 여전히 ‘윤 어게인’을 외치는 이들은 뭔가? 그들의 임계점은 도대체 어디일까? 부디 침팬지에게서라도 배워야 한다. 나는 루마니아 민중이 부럽다. <전 국립과천과학관장>

의료칼럼



양태영
태영21내과 대표원장

우리나라 암 발생 1위가 갑상선암이지만 일부는 수술하지 않아도 될 만큼 위험적이지 않다. 갑상선 질환들이 소홀히 다루지는 경향이 있지만 갑상선 이상은 자칫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어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갑상선은 목 앞 부분 가운데 앞으로 튀어나온 물렁뼈(아담의 애플)와 기관지 사이에 존재한다. ‘선’은 한자고 ‘샘’은 순우리말로 갑상선과 갑상샘은 같은 말이지만 대다수 ‘갑상선’으로 부른다. 갑상선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 저장하고 혈액으로 분비해 신체대사를 조절한다. 신체 대사 과정을 촉진시켜 장기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게 하고 체온을 유지시켜 주며 신진대사 속도를 조절한다. 자기 몸, 즉 갑상선에 대한 항체가 생겨 스스로 갑상선을 외부 물질(균)로 착각해 공격하는 항체를 자기항체라고 부르고 이런 질환을 자가면역질환이라고 하는데, 갑상선 기능 이상의 대부분이 이 자가면역 때문에 발생하며 이는 유전적 소인이 원인이다. 갑상선기능항진증의 대표 그레이브스, 저하증의 대표인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바로 자가면역질환이고 갑

갑상선과 삶의 질

상선 질환의 약 90%를 차지하는 대표적 질환이다. 갑상선 호르몬이 많아지면서 대사 속도가 빨라져 기능항진증이 되며 땀을 많이 흘리고 신경이 예민해진다. 또 잘 먹는데도 살이 빠지며 심장과 위장운동이 빨라져 대변을 자주 보거나 설사를 한다. 손 떨림도 흔한 증상이다. 반대로 갑상선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면 대사 속도가 느려져 추위를 못 견디고 얼굴과 손발이 붓고 체중이 증가한다. 위장운동이 느려져 변비가 발생하며 기억력도 감퇴한다. 심한 상태의 갑상선 기능 항진이나 저하증이라면 환자의 모습만 슬쩍 봐도 진단할 수 있지만 확진을 위해선 혈액검사와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다.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치료는 약물요법, 방사성요오드, 수술 등 세 가지가 있는데 서로 보완적이다. 즉 한 가지 방법으로 치료에 실패한 경우 다른 방법으로 성공적으로 치료될 수 있다. 갑상선기능저하증은 원인에 관계없이 갑상선 호르몬을 투여하는 것이 치료의 전부이다. 쉰지로이드(혹은 쉰지록신)라는 약제인데 용량 조절만 잘하면 평생 복용해도 부작용이 거의 없다. 이제 갑상선에 대해 살펴보겠다. 갑상선 종양, 혹, 결절, 낭종은 비슷한 의미로 사용한다. 갑상선에 혹이 생긴 것을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이 혹이 암인지 구분할 때 악성종양과 양성종양이라고 표현한다. 악성이 암이다. 요즘 가이드라인은 암이 의심돼도 혹이 크지 않으면 지켜보는 것인데 전문가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산부인과에서 임신이 잘되지 않는 여성에게 제1면

저 하는 검사가 유증분비호르몬과 갑상선기능검사이다. 갑상선 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젊은 여성의 고민은 ‘혹시 불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과 ‘약물복용 중 임신 을 해도 되는가’이다. 실제 갑상선질환이 있으면 임신이 잘되지 않지만 치료를 적절히 하면 불임이 되지는 않는다. 또 갑상선 약은 임신 중 복용해도 안전하다. 갑상선에서 호르몬을 만들 때 원료로 사용하는 게 요오드이다. 몸에서 요오드를 필요로 하는 기관은 오직 갑상선이다. 당연히 요오드 섭취가 부족하면 호르몬을 만들지 못해 기능저하증이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해산물을 많이 먹는 편으로 요오드 결핍에 의한 질환은 없지만 갑상선 질환이 있는 경우 필요 이상 많이 먹으면 치료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즉 갑상선 질환이 있다고 해서 일부러 안 먹음은 없으며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고 있는 양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갑상선 질환자는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갑상선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고통스러운 경우는 드물다. 다만 방심하면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치료를 소홀히 해 여러 가지 증상을 안고 사는 경우도 많다.

갑상선에 발생하는 질환은 대부분 원치가 가능하다. 갑상선 치료제는 임신 중에 먹어도 안전하다. 요오드 역시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먹는 식사만으로도 충분히 따로 보충할 필요는 없다. 갑상선에 특별히 좋고 나쁜 음식은 없으니 입맛에 맞게 먹으면 된다.

오늘의 권리 없이는 내일의 기회도 없다

다. 출근 시간에 전화를 열 번 걸면 여덟 번은 배차 지연 문자가 온다. 어렵게 연결돼도 원하는 시간에 배차되는 힘들다. 특히 비나 눈이 오는 날이면 대기 시간은 훨씬 길어지고 병원 예약이나 중요한 약속을 지키기조차 어렵다. 이동이 막힌 도시에서 기회의 평등은 허상이다. 이동할 수 있어야 배우고 일하고 즐길 기회도 생긴다. 그러나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일자리도 멀어진다. 광주시는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단기·저임금 일자리의 반복이다. 경증 장애인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어렵고 중증 장애인은 선택지조차 거의 없다. 설명 일을 구해도 대부분 시간제·단순 노무에 머물러 생활을 유지하기조차 벅차다. 오늘 일할 기회가 없다면 내일의 기회도 없다. 문화·체육 공간의 문턱 역시 높다. 공연장 휠체어 좌석은 한두 곳에 불과해 가족과 떨어져 앉아야 하고 체육시설은 접근조차 어려운 곳이 많다. 아이들이 친구들과 뛰고 웃으며 가족과 공연을 즐길 권리는 여전히 멀다. 이런 현실에서 통합교육과 기회의 도시라는 말은 허공에 맴돌 뿐이다. 물론 일부 정책은 작은 희망을 준다. 통합 돌봄 서비스, 장애인 통계 데이터 구축, 탈시설·자립 생활 지원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시민이 매일 체감하는 이동권·일자리교육·문화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진 구호로 남는다. 결국, 문제는 우선순위와 예산이다. 광주시는 장애

인 정책을 말하면 늘 예산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시내 곳곳의 대형 현수막, 조형물, 각종 축제와 행사에는 예산이 넘친다. 정작 시민의 권리를 위한 예산은 부족한 데 보여 주가식 홍보에는 돈이 쓰인다. 과연 이 도시의 내일은 누구를 위한 설계인가. 오늘 이동하지 못하는 시민은 내일의 도시를 누릴 수 없다. 늘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시민은 내일을 꿈꿀 수 없다. 광주가 진정한 기회의 도시가 되려면 장애인의 권리를 오늘부터 지켜야 한다. 시민의 내일은 오늘의 권리 위에 세워진다. 권리는 미룰 수 있는 약속이 아니다. 정치적 수사나 홍보성 구호가 아니라 시민의 하루하루를 지탱하는 생명줄이다. 오늘의 이동권과 일자리, 교육과 문화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면 내일의 화려한 도시 계획은 결국 종이 위 설계도에 그칠 뿐이다. 광주의 미래는 거대한 조형물이나 화려한 축제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한 명의 장애인이 안전하게 버스를 타고 출근할 수 있는가? 가족과 함께 공연을 즐길 수 있는가? 아이들이 차별 없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가? 이 사소하지만 절박한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진짜 기회의 도시다. 오늘 권리를 지키는 도시만이 내일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 기회를 나누는 도시 는 오늘의 권리에서 시작된다. 광주의 내일은 거창한 표어가 아니라 오늘의 장애인 권리를 지키는 일상적인 실천에서 출발한다.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도시만이 미래를 설계할 자격이 있다. 광주가 그 길을 선택하기를 그리고 우리의 오늘이 내일의 희망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社說

일제강제동원 역사관·기록물 광주 자산으로

광주시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의 대모’ 고(故) 이금주 여사가 남긴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한다. 또한 옛 전남·일신방직 부지에 일제강제동원 시민역사관을 건립하기로 했다. 이 여사의 방대한 기록을 보존하고 연구하기 위해 역사관을 짓고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겠다는 것인데 일제강제동원 역사에 대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이자 광주의 자산이라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 이 여사는 1988년부터 태평양전쟁희생자 광주유족회를 이끌면서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과 진상규명에 헌신한 인권운동가다. 일본과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평생 강제동원 및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 쟁취를 위해 헌신해왔다. 한국정부가 강제동원 진상규명과 피해자 인권회복에 나설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았고 2018년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것도 그의 힘이었다.

이런 노력도 중요하지만 더 의미있는 것은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겼다는 데

있다. 이 여사가 남긴 기록은 소송하면서 쓴 40년 동안의 일기는 물론 피해자들의 육성 채록 등 1670여점에 달한다. 그 중 피해자 1273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일명 ‘1000인 소송’은 피해자 증언과 소송 진행 및 결과를 모두 담고 있어 동아시아 강제동원 피해 기록으로는 가장 방대하고 강제동원 피해를 입증하는 직접 증거자료로서 가치가 크다. 이 여사의 기록물은 단순히 개인의 역사 기록에 그치지 않는다. 1000인 소송 기록이 말해주듯 피해자 한 명 한 명의 기록이 모여 일제 강제동원과 위안부 피해역사라는 모자이크를 완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광주시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성공할 수 있도록 자료의 가치와 역사성을 충분히 어필해야 한다. 등재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제 수탈의 상징인 방직 부지 터에 추진하는 시민역사관 건립은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일제강제동원 역사 기록물이 광주의 새로운 자산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AI·에너지 전환, 광주·전남 미래산업 탄력 기대

이재명 정부가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가 윤곽을 드러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어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국민 보고대회를 갖고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 관심은 단연 경제발전 전략이었다. 새 정부는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을 전면에 내세웠는데 AI와 에너지 전환이 광주와 전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과 직접 연관돼 있어 기대감을 갖게 한다. 새 정부는 독자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AI를 핵심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인데 AI 컴퓨팅센터 등 AI 국가 시범도시 조성을 추진하는 광주의 미래 산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대전환과 관련해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을 주 전력원으로 2030년대에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해 재생에너지 메카인 호남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송전하겠다

고 밝혔다. 예고한 대로 전남에 100% 재생에너지로 가동하는 RE100 산단도 국정 과제에 포함돼 전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도 안전망을 확보했다. 광주와 전남은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전남은 주력인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어 새 성장동력 확보가 최대 과제였는데 이재명 정부가 5년간 추진할 핵심산업의 주 무대로 지정돼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민 보고대회에서 말한 것처럼 국정과제가 반드시 그대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 국정과제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지만 추진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미래 성장동력 산업이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길 바란다.

無等鼓

1968년 1월 21일 김신조를 비롯한 북한 특수부대원 31명이 청와대 기습과 대통령 암살을 위해 서울로 침투했다. ‘1·21 사태’로 불리는 이 사건은 6·25 전쟁의 상흔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1·21 사태 여파로 항토예비군, 육군3사관학교, 전투경찰대 등이 창설됐고 고교·대학에는 군사훈련 과목인 교련이 도입됐다. 인왕산·북악산과 청와대 앞길은 경호 차원에서 일반인 통행이 금지됐다. 국가 위기대응 점검을 위한 ‘태극연습’도 시작됐다. 이때해인 을지훈련’으로 명칭이 바뀐 뒤 지금까

교란, 감염병 재확산을 가정한 ‘복합위기’ 시나리오와 공공·민간 연계 점검 등이 훈련의 핵심이 되고 있다. 오래전 애기지만 야간훈련이 필수인 탓에 긴 밤시간을 이용해 술판을 벌였다가 징계를 받은 공무원도 종종 있었다.

이재명 새 정부 첫 을지훈련이 18~21일 공공기관과 주요 민간시설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이 기간 공직자 휴가는 제한되고 교대로 24시간 비상근무 체제가 유지된다. 광주시는 역대급 이상기후·전시 등을 가정한 주민 대피와 테러 상황 현장 대응, 긴급 복구훈련 등을 통해 실천적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겠다는 각오다.

일부에선 새 정부가 대북 확장기를 열거하는 등 남북 긴장을 완화하고 있어 훈련의 규모·방식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을지훈련은 안보를 넘어 폭염·폭우 등 기후재난과 사회기반시설 마비, 사이버 위협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훈련으로 원칙을 엄정히 지키고 실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남북화해 국면에는 규모가 줄었고 천안함 피격 등 군사적 충돌이 있었던 때에는 범위와 강도가 강화됐다. 최근에는 기상 이변, 사이버 공격, 전력망 마비, 공급망

을지훈련

을 가정한 주민 대피와 테러 상황 현장 대응, 긴급 복구훈련 등을 통해 실천적 위기대응 능력을

기 고



배영준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활동가

광주가 진정한 기회의 도시라면 오늘의 현실부터 직시해야 한다. 오늘의 권리를 지키지 않는 도시에 내일의 기회는 없다. 지난 3년 동안 광주시는 내일이 빛나는 기회의 도시를 시정 철학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민선 8기의 마지막 해가 된 지금 나는 묻는다. 그 약속은 시민의 일상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나는 매일 그 질문을 되뇌는다. 현실의 장벽은 언제나 이동에서 시작된다. 광주시는 저상버스 100% 도입을 약속했지만 휠체어를 탄 나의 하루는 여전히 불편과 불안으로 시작된다. 버스가 와도 리프트가 고장 나 있거나 기사님이 승차를 주저할까 걱정된다. 한 번 버스를 놓치면 길바닥에서 한 시간 넘게 기다리는 일이 다반사다. 지난 여름 폭우가 쏟아지던 날을 잊을 수 없다. 첫 번째 버스는 리프트 고장으로 그냥 지나갔고 두 번째 버스는 승차를 돕느라 10분 넘게 정차했다. 그 사이 웃은 흠뻑 젖고 체온은 떨어졌다. 그날 깨달았다. 이동권은 편의가 아니라 생존이다. 대안으로 기대했던 광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새빌콧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